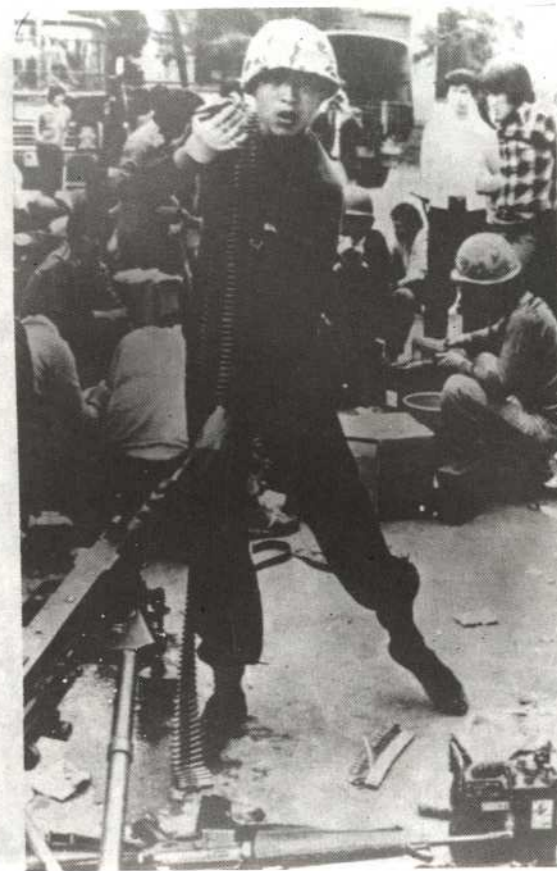




M16 자동 소총소리가 콩볶듯이 울려 퍼졌다. 선두에 섰던 시민들이 두 손에 돌맹이를 쥔 채로 쓰러졌다. 시민들은 안타깝게 발을 구르며 외쳤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발포는 시민의 무장을 초래했다. 시민들은 각종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을 분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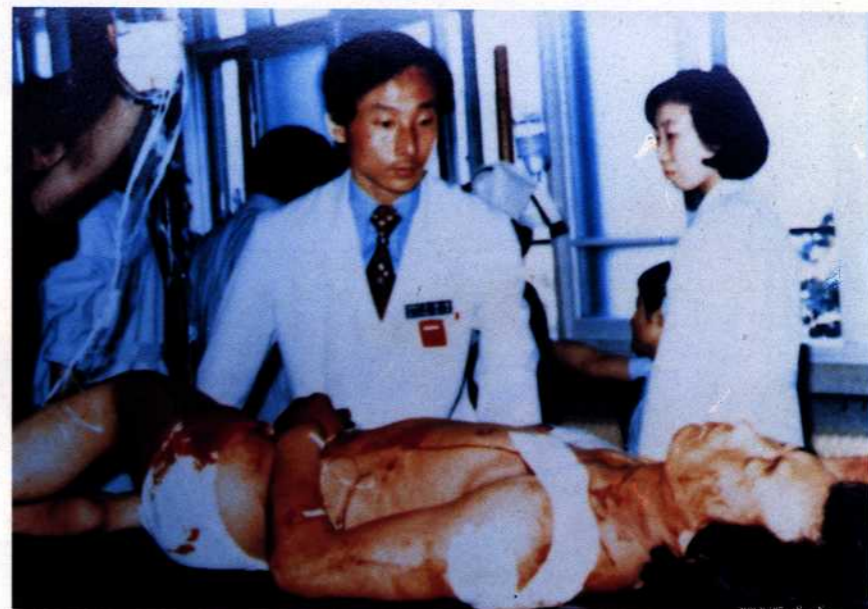
이제는 총과 총의 직접적인 대결이었다. 시민들은 무장한 시민들을 「시민군」이라 불렀다. 무장을 갖춘 다음 시내를 행진하면서 시민군은 비장한 각오를 했다. 도청 주위는 치열한 총격전의 전장이 되었다.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차량행렬은 엄청난 분노의 파도로 밀려들어갔다. 응축되었던 민중적 투쟁 역량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나오는 해일과도 같았다. 이것은 시민들 스스로 역사의 전면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미 광주는 계엄군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며 시민들이 싸워 흘렸던 피의 댓가로 시민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형제자매요 혈연이 되어버렸고, 서로를 걱정해 주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시가전 도중에 쓰러져 갔다.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공수부대와 비조직적인 시민군의 싸움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뿐 아니라 공수부대의 화력은 몇배나 우세하였다. 시민군 쪽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사람들은 총탄이 비오듯이 교차하는 아스팔트 위에 나뒹구는 사상자나 부상자를 끌어내 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금남로는 피로 얼룩졌고 그날 밤 도청 탈환을 위해 외곽의 시민군들이 총집결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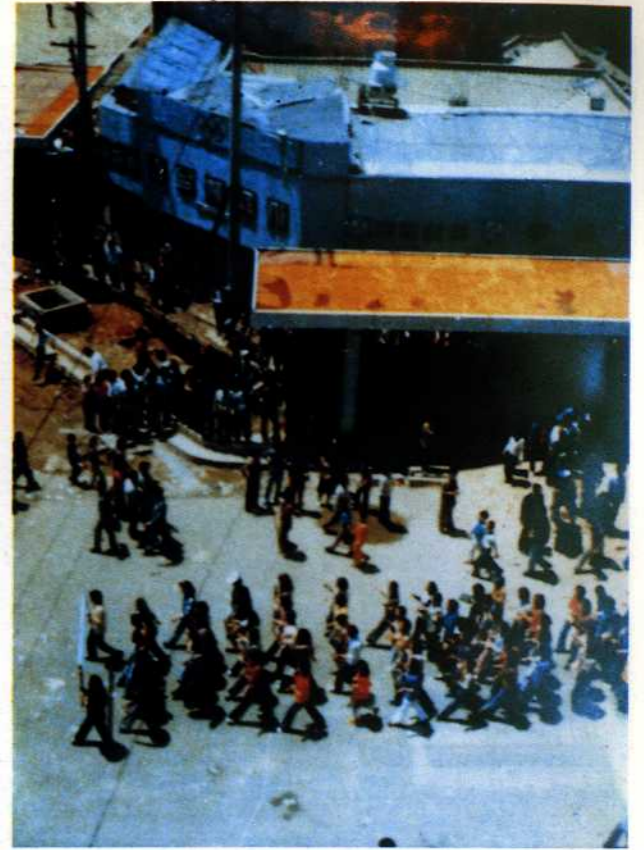
해방 광주

아침햇살 그 투명한
빛, 해방의 빛이 온 광주에 퍼지다
이제는 피로써 연결된 해방의 공동체
5월 22일 목요일 항쟁5일째
처마 밑에 숨은 새들도 눈물을 흘리다





이제 우리는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피물은
 목숨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피물어 처참하게
 아름다운 흰옷을 얻은 것입니다. 해방된 공동체
 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희망의지와 구원의지
 와 혈벗으면서 가난의 근육 불끈불끈 솟는 힘
 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갈고 씨 뿌리며
 이 땅을 우리 아픈 몸의 일부로 삼고
 살면서 명심해야 합니다.
 싸우는 것만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금남로에는 수백명의 가정주부들이 김밥을 함지에 담아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주먹밥이야말로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이었다.



도청앞 상무관에 신원이 확인된 시신들을 안치하고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도청앞 광장을 「민족의 광장」이라 이름하였다.



남도의 나라는 아름다웠다.
 페퍼포그가 멈추고
 최루탄이 사라지던 날
 무진벌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도
 꽃 이파리를 뿌려주는 것도 아니었건만
 남도 땅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도청 주변의 건물에는 여기저기 대자보가 나붙었다. 사람을 찾는 대자보, 시체가 발견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대자보, 시민들을 격려하는 대자보, 현 정세를 알리는 뉴스 대자보 등이 광주의 언론 구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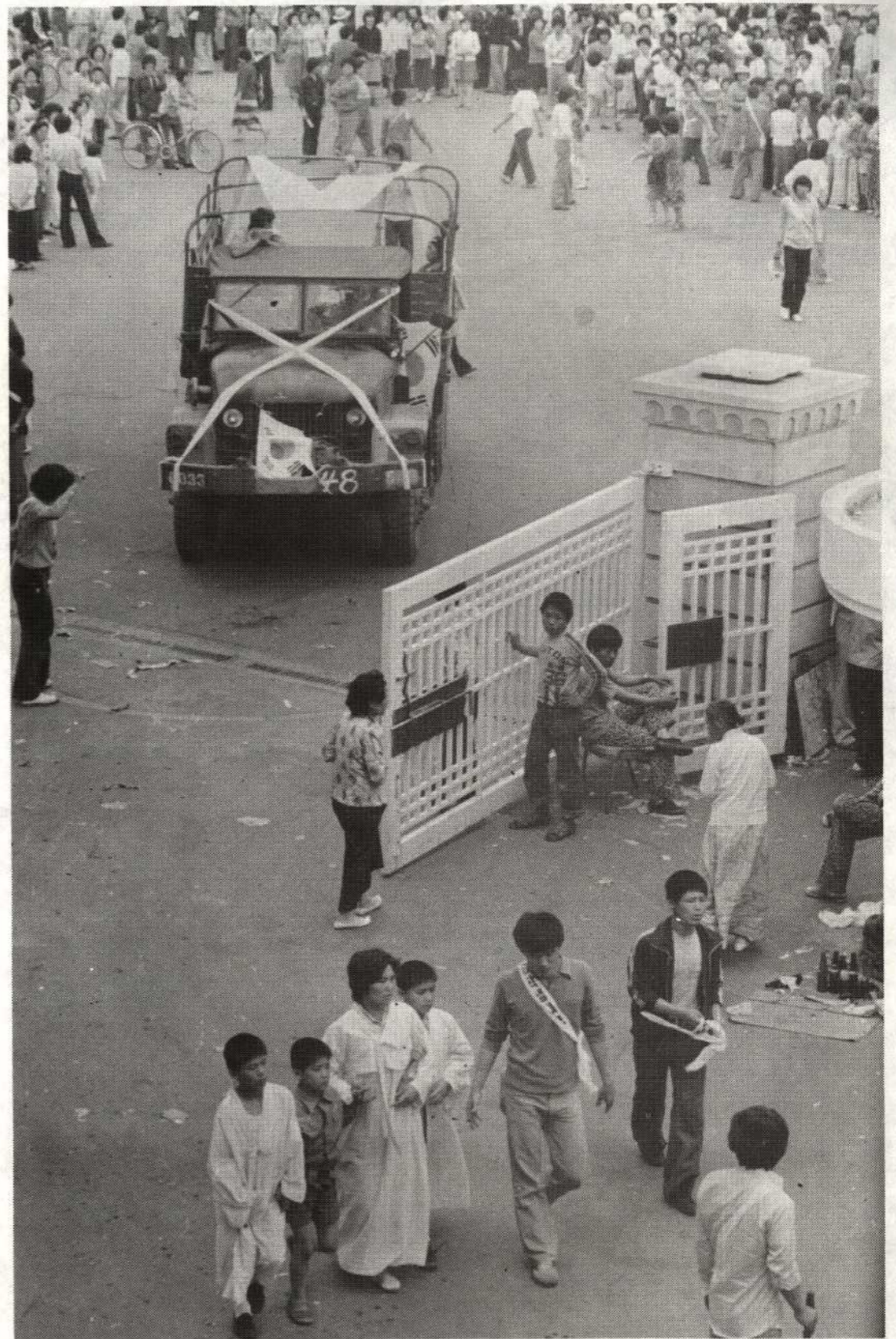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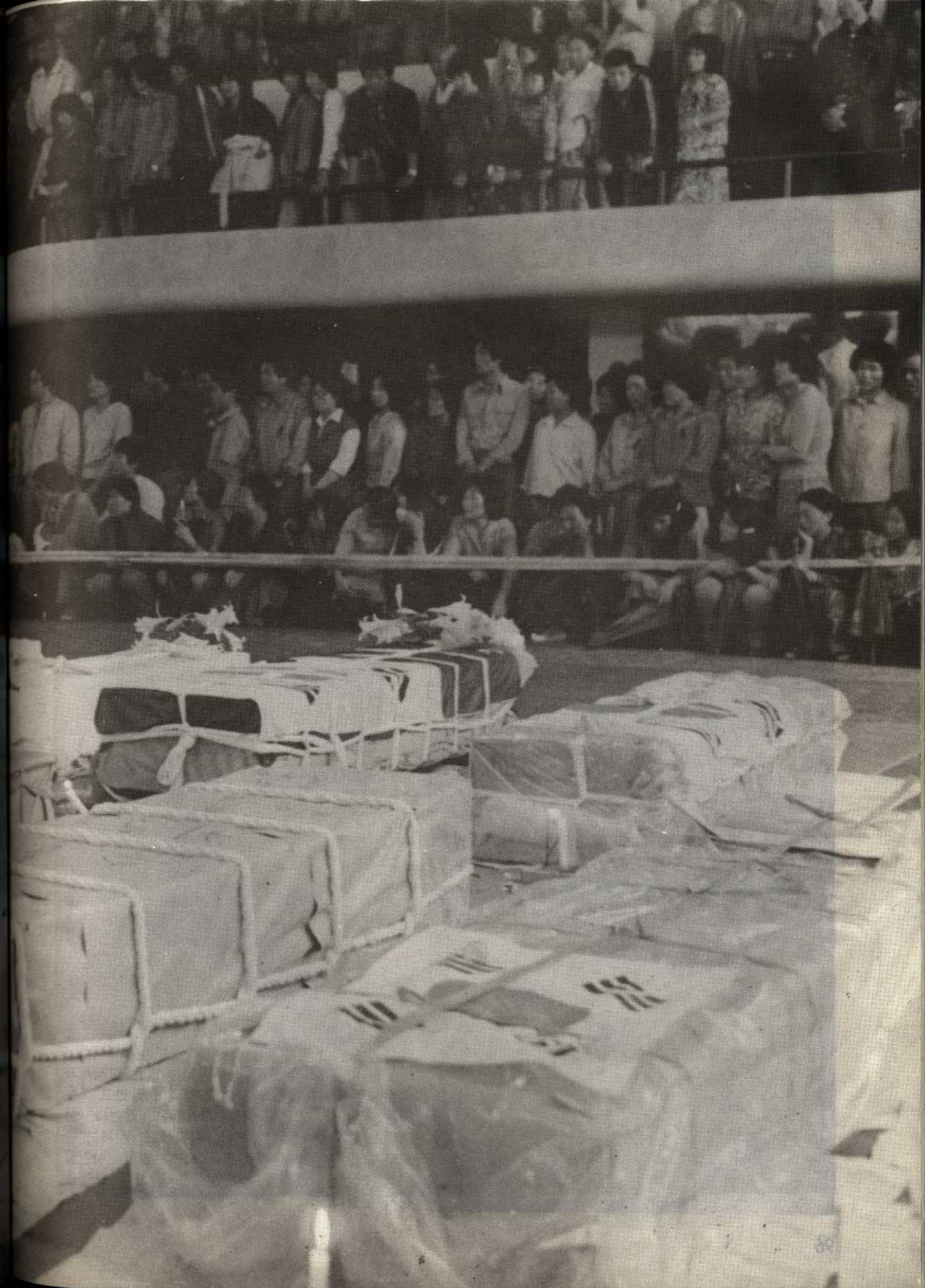
시민들은 날마다 도청 앞으로 운집하였다. 도청 앞에 물려 든 시민들은 피와 생명을 바쳐 쟁취한 「민주」를 지키자고 하였다. 쫓겨대회에서 수없이 많은 성명서와 시민들의 자작시가 낭독되었다. 노래도 불렀다. 그러기를 며칠간 26일까지 날마다 쫓겨대회가 열렸다.

김영호 촬영



도청에서는 각 가정에 돌아오지 않은 행방불명자의 명단을 접수하여 여러 병원의 입원 환자와 사망자의 명단과 대조하며 확인하였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행렬은 끝이 없었다. 대개 아주머니나 노인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모두 울고 있거나 근심스러운 표정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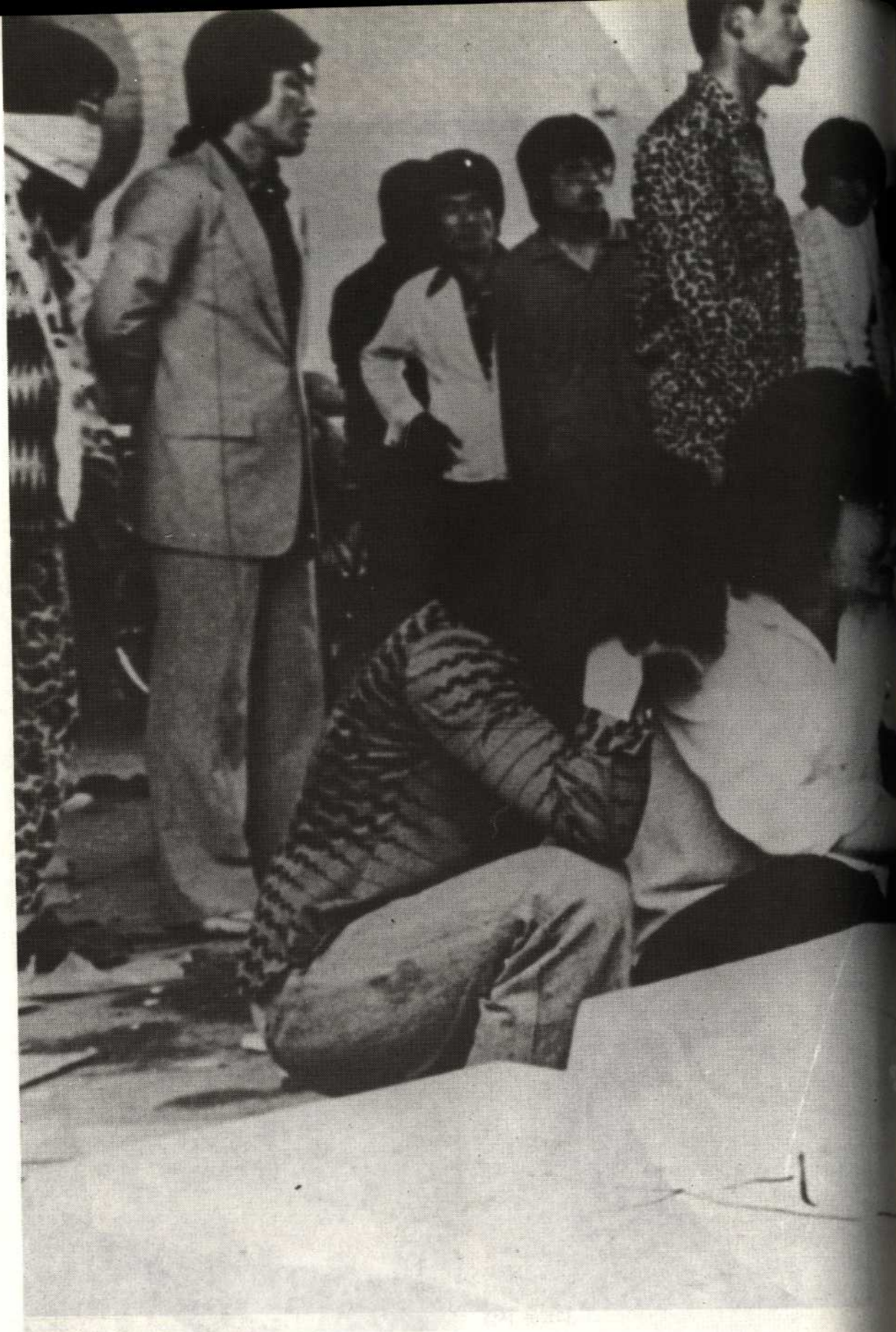






도청 앞 광장 맞은 편 상무관에는 많은 시체가
질서정연하게 무명천에 덮여 진열되어 있었고, 무
명천 위로 검붉은 핏자국들이 배어나와 있었다. 분
향대가 입구에 설치되어 향이 피워졌고, 시체는 부
패되지 않도록 방부제가 뿌려졌다. 수많은 시민들
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이어 분향했다. 모두 오염을
참지 못했다.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젊은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광우학생운동은 4.19 혁명은

광우 학생은 생크 열배

생크로 생크 운동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후배 들인 것입니다.

타오르는 구별의 불은 길 생애에

질곡을 바라보 공부는 정면이 아니라

어려운 천명을 살리며 전두환의 민중을

어려운 부모 형제 동생의 권위

갈고라도 변변할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의의는 없애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 조국의 민주화를

진정히 믿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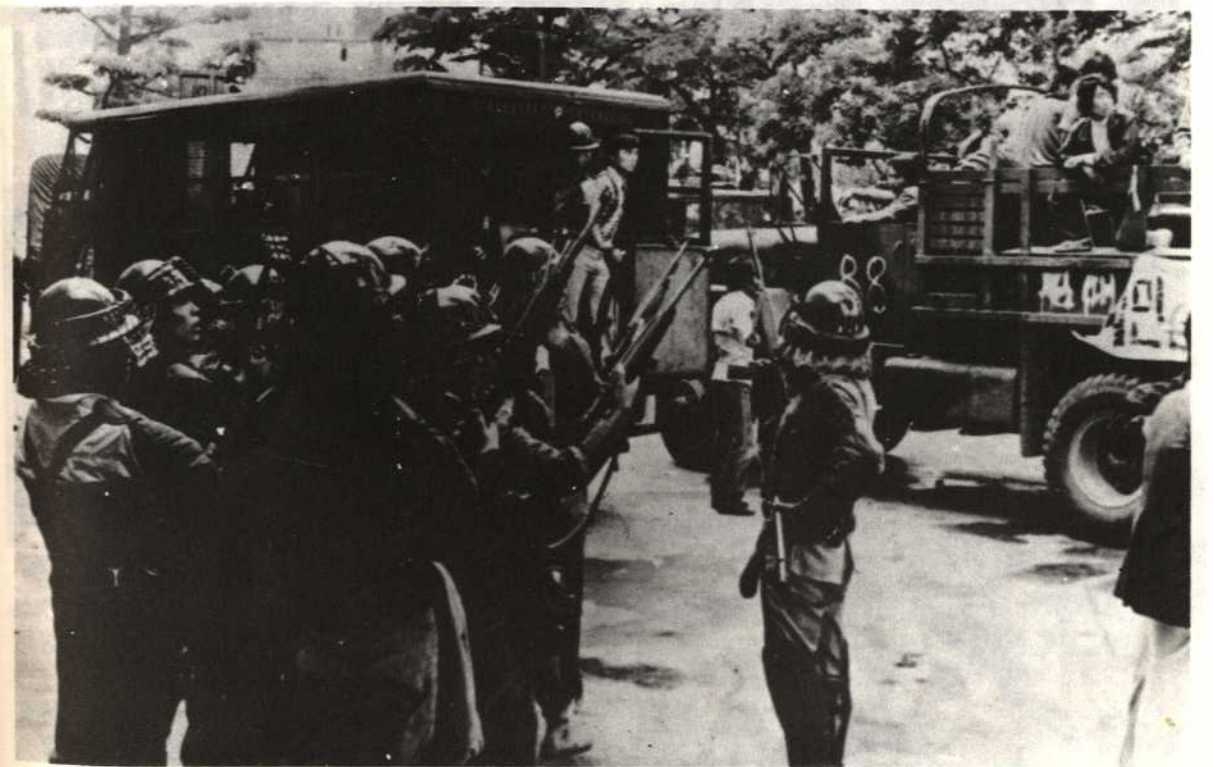
필요하여 조국의 민주화를

실까지 투쟁 합시다

1980년 4월 11일



해방감과 승리감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차츰 질서가 잡혀가고 무기회수 문제가 쟁점으로 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갔다. 아침마다 고등학생들 700여명이 시내 곳곳을 청소했으며 시민들도 자기의 동네와 도로를 깨끗이 쓸어냈다.



해방감과 승리감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차츰 질서가 잡혀가고 무기회수 문제가 쟁점으로 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갔다. 아침마다 고등학생들 700여명이 시내 곳곳을 청소했으며 시민들도 자기의 동네와 도로를 깨끗이 쓸어냈다.

기동타격대

밤새도록 외곽지대에서는 간헐적인 총성이 들려왔다. 계엄군은 외곽을 완전히 포위한 채 지속적인 교란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엄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였다. 회수된 무기와 실탄을 신분이 확인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에게 지급하고 조를 편성하였다. 각 조마다 무전기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기동타격대는 시민들 앞에서 선서하였다.

「우리는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동타격대원으로써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에 충실할 것을 선서한다.」



기동타격대는 13개조, 조당 7 - 8 명의 조원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임무는 계엄군의 동태파악, 계엄군 진입시 저지, 시내 범법자의 체포 및 연행 등이었고 개인 별로 칼빈 1정, 실탄 1클립, 철모 등이 지급 되었으며 조별로 차량 1대가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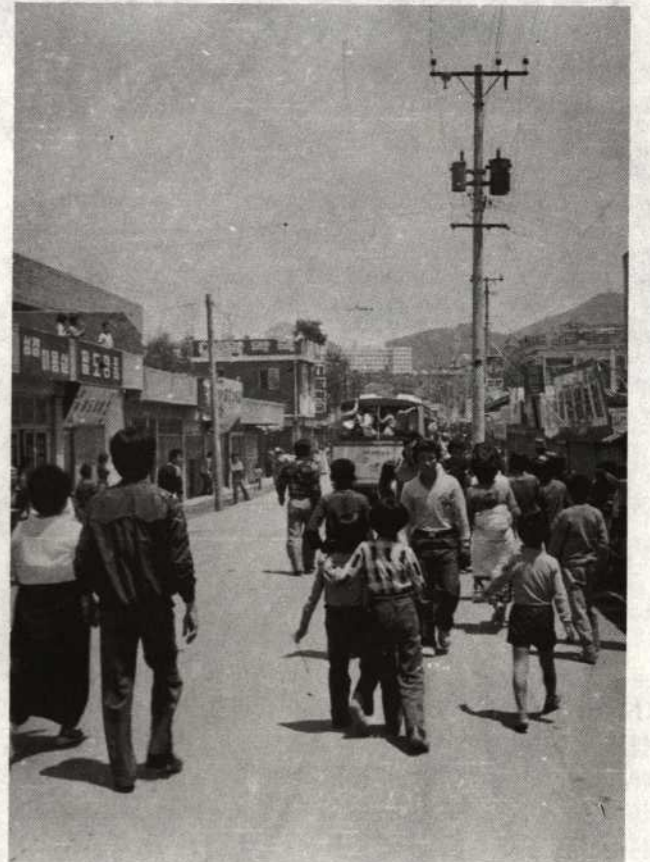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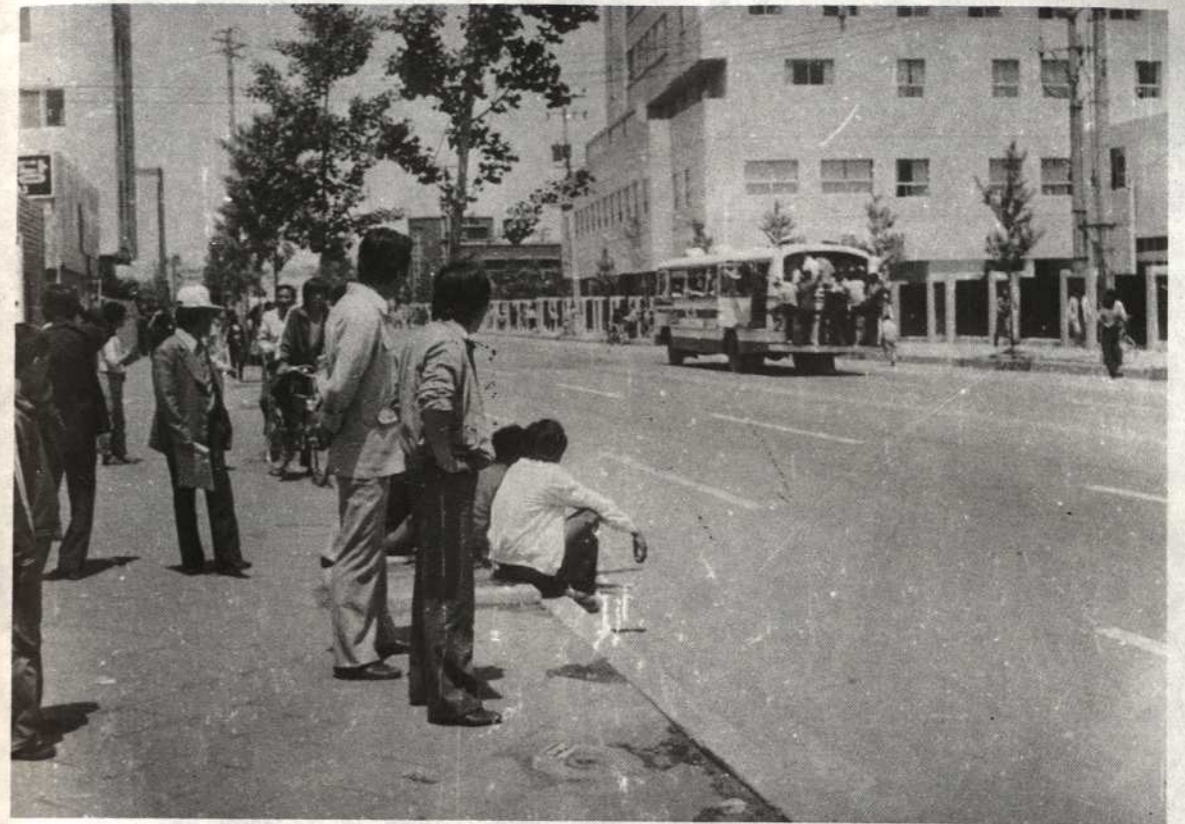
각 지역에 따라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특히, 지형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인지라 지역별 계엄군 동태의 감시가 용이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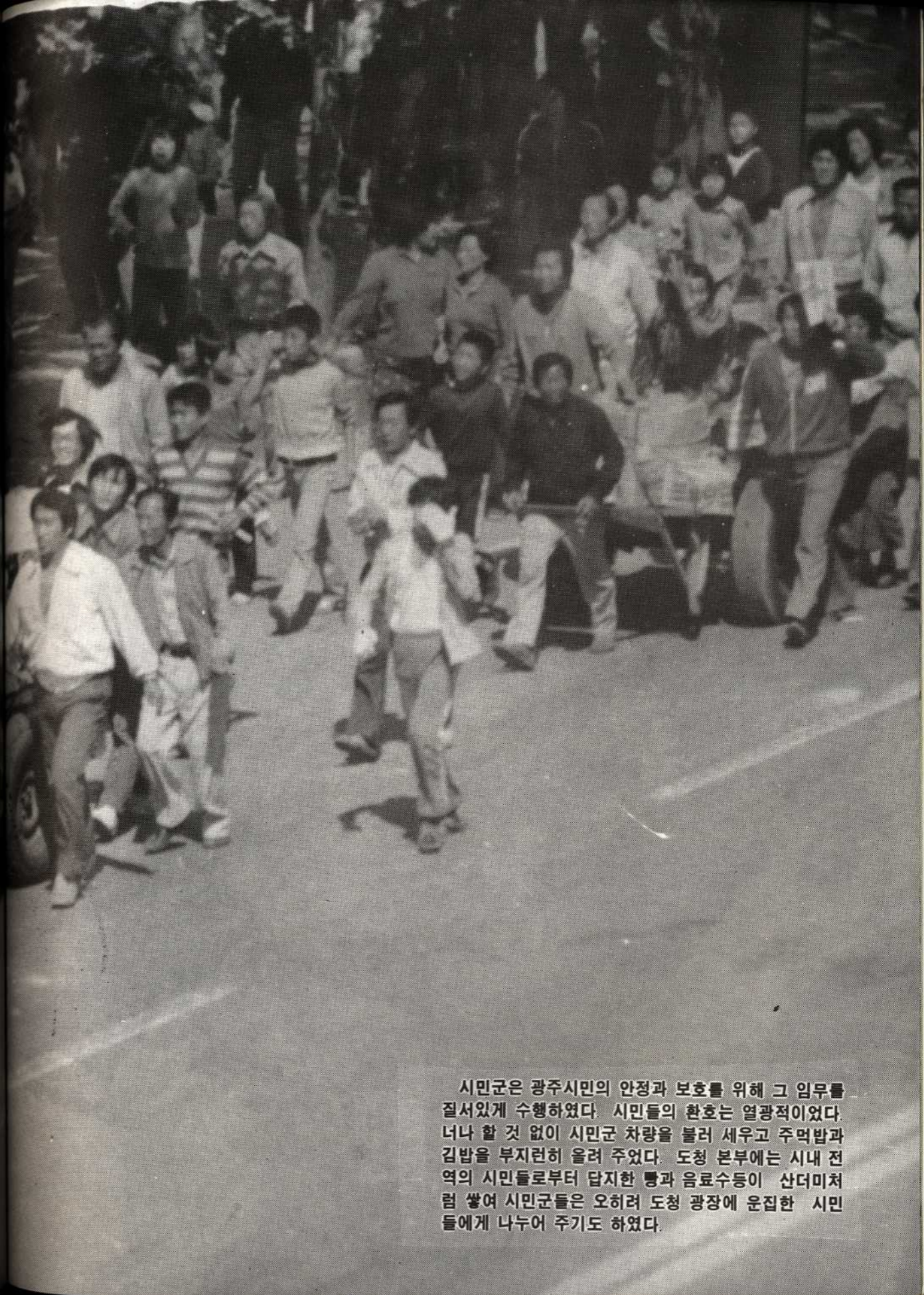


주유소마다 기름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차량을 통제하고 운행증을 발급했다. 기동타격대, 선전조, 구급조, 식량배급조, 시민 운송조 등으로 나뉘어 기름의 소비를 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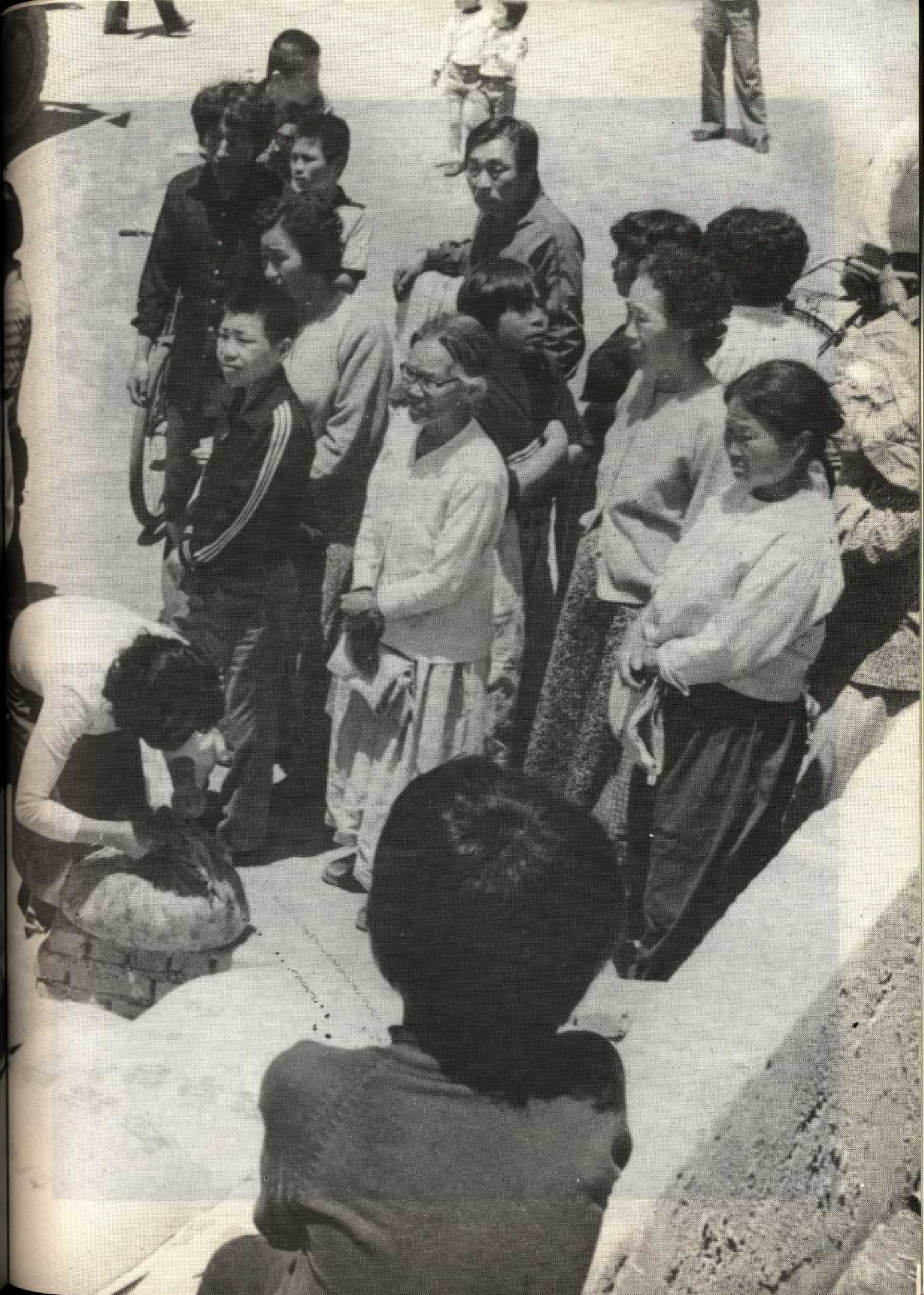
광주 전역이 질서를 스스로 회복하고 있을 때 군경 헬리콥터가 계엄사의 뼈라를 뿌렸다. 뼈라의 내용에는 「광주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의 소행이고 총기를 든 폭도들의 행패는 계속 가열되고 있으므로 당국은 곧 소탕하겠다」는 계엄사령관의 엄포가 적혀 있었다. 전단을 읽은 시민들은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광주시민 모두가 간첩이고 불순분자란 말이나”



25명의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들은 김성룡 신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제안한 4가지 사항을 통과시켜 「최규하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 4가지 사항은 첫째,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잘못임을 시인할 것, 둘째, 사과하고 용서를 청할 것, 셋째,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할 것, 넷째, 어떠한 보복조치도 없을 것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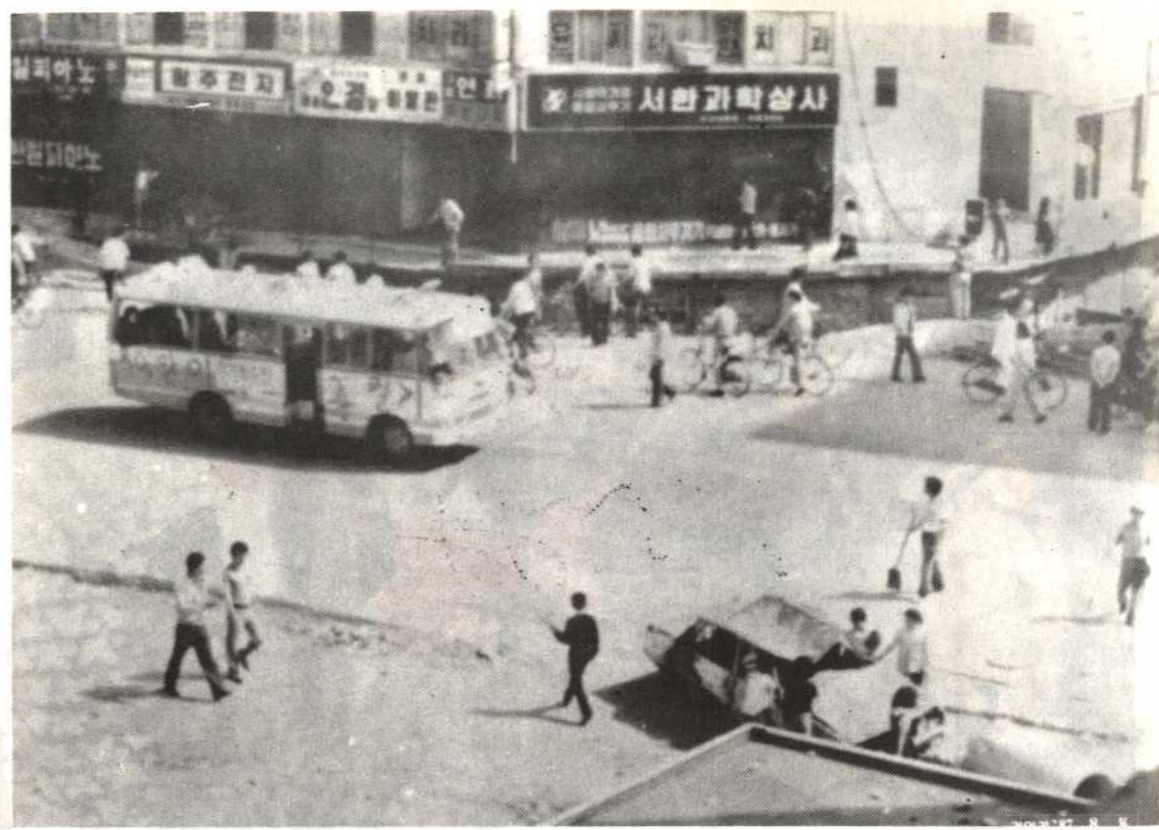
시민군은 광주시민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그 임무를
질서있게 수행하였다. 시민들의 환호는 열광적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민군 차량을 불러 세우고 주먹밥과
김밥을 부지런히 올려 주었다. 도청 본부에는 시내 전
역의 시민들로부터 답지한 빵과 음료수등이 산더미처
럼 쌓여 시민군들은 오히려 도청 광장에 운집한 시민
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해방기간 나흘째 부터는 어느정도 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었다. 시장과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각종 상점에서는 사는 쪽이나 파는 쪽 모두 사재기를 방지하려 노력하였다. 오히려, 고아원과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식량배급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지원에 의해 해결되었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평상시 정부의 통제아래 있을 때 보다도 범죄율이 훨씬 낮았다. 광주시민이 보여 준 경이로울 정도의 도덕심과 자율성은 시민들의 피로 찾은 자유와 해방을 지키려는 금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청 안에 있는 시민군과 지도부 4백명의 식사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밥을 지어 나르다가 항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러 동네 단위로 식량을 거두어 보내기도 하였고 모금된 돈으로 반찬거리를 사보내기도 하였다.





「민주수호 범시민 쫓겨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을 기동 타격대가 보호하고 있다. 시민수송 차량이 시내버스를 대신하여 질서있게 움직이고 시내 곳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청소대를 조직하여 손에 삽이나 빗자루를 들고 담당구역으로 향하고 있다.



항쟁기간 처음 며칠동안 엄청나게 밀려들어 온 부상자들 때문에 피가 모자라 곤란을 겪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헌혈하려는 시민들이 쇠도 하여 병원마다 피가 남아 돌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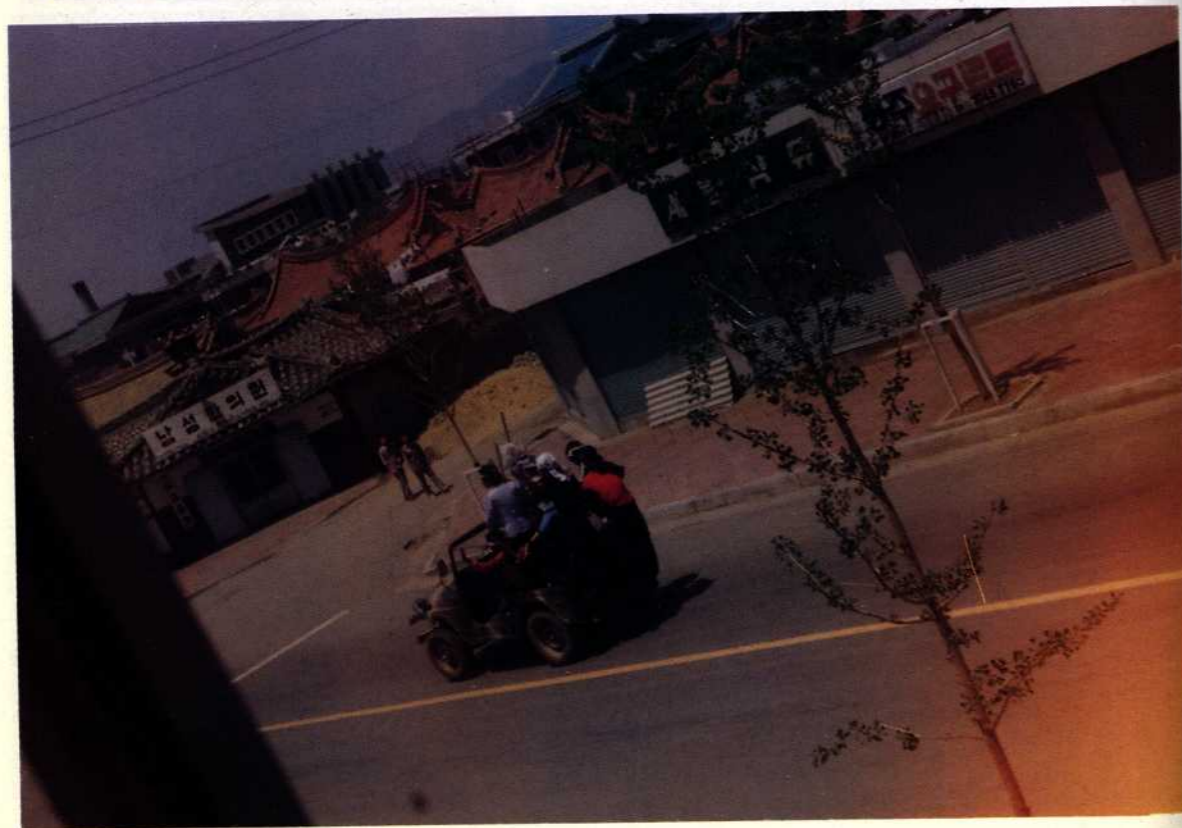


시위는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전남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폭발하였다. 광주에서 내려간 시위대의 영향이 컸었지만 그 곳 지역의 자연발생적인 시위도 있었다. 광주에서는 릴기대회를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동네별로 각종 프랑, 피켓을 들고 도청 광장으로 연일 집결하였다.



도청 앞 분수대가 그대로 연단으로 사용되어진 쫓겨대회는 항쟁기간 중
에 목숨을 잃은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과 애국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서 시민들 가운데 농민, 학생, 교사, 노동자, 주부 등 각계각층의 사람
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현 사태에 대한 의견과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모두 끝까지 싸워서 자신들이 쟁취한 민주해방을 수
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군 지휘본부는 그동안 시민 학생들의 피
해상황이 임시 파악한대로 보고 되었는데, "가족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시신 30여구, 미확인자 및 사망자 600여명, 부상자 3,000여명, 그밖에 공
수부대에 실려간 시체나 실종자는 파악할 수도 없다"고 보고되었다.

도청 광장 외에 외곽지역 곳곳에서 시민 학생들에 의해서 쫓겨대회가
소규모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다. 26일 오후 6시 「제 5차 민주수호 범시민 쫓겨대회」가 끝나고 시민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도청 광장을 떠날 줄을 몰랐다. 밤의 어둠이 밀려오면서 고립된 광주는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였다. 그냥 이대로 총을 버리고 투항하기에는 지난 며칠동안의 항쟁이 너무 장렬하였다. 앞서 죽어간 시민들의 항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도청을 사수하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과 집에 남은 가족들의 얼굴이 헝크러져 떠올랐다.







Die Soldaten
kennnen keine
Barren
legen den Studenten
Fesseln
Füße, Hände
Hals. Wer
rührt, stranguliert
sich selbst



항쟁의 피로 물든 아침이 밝아왔다. 마침내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마지막 시민군들이 두손을 쳐 들고 나왔으며 수많은 시체와 부상자가 수대의 트럭에 나뉘어 실려나왔다.



rmacht des
war
e Studenten
014
sich. Die
s sie, miß-
en sie -
hossen sie

Das Blut floß in
Strömen. Blut von
Studenten und
Soldaten. Die
Jugend wollte
Demokratie. Das
Militär verteidigte
die Diktatur.
QUICK berichtet
über den Aufstand
in Kwangju

Blutiger Aufstand in Südkorea



계엄군은 시 변두리에 진입하면서 주택가에 불이 켜졌거나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만 보이면 무조건 M16소총으로 갈겨댔다. 이때의 총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살되었다.